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낭만성과 송고*

김 미 영**

차례

1. 머리말
2. 낭만적 주체의 생명존중과 송고
3. 정치적 낭만성과 송고
4. 초월적 주체의 송고한 사랑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낭만성과 송고를 살펴보는 데 주력하였다. 『시장과 전장』은 6·25 전쟁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시장’과 ‘전장’이라는 대비적 공간 구조로 치환하여 낭만적 기질이 강한 주인공들의 삶의 변화를 보여준 작품이다. 여주인공 남지영의 서사와 남주인공 하기훈의 서사가 병렬적으로 전개되는 이 작품은 서울 시민으로서 겪었던 피난체험과 빨치산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보여주는 코뮤니스트의 이야기가 중심 사건이다.

결벽중에 가까운 성격이지만 고결한 성품을 지닌 지영의 서사와 코뮤니스트로서의 이념을 신봉하는 기훈의 병렬적 서사를 통해 낭만적 성향을 지닌 주인공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하기훈의 애인 이가화가 사

랑을 위해 빨치산 진영으로 찾아가는 행위까지 종합하여 보면, 세 인물들은 모두 현실과 유리된 초월적인 모습을 지닌 캐릭터로서 먼 곳에 대한 동경을 추구하는 낭만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세 인물의 낭만적 기질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룡기누스와 버크, 칸트 등이 정의한 송고미를 드러낸다. 송고미는 대상의 절대적 힘 앞에 지녔던 공포의 감정, 즉 불쾌의 감정이 쾌의 감정으로 전이하면서 내적 고향을 느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감정의 고양을 불러일으키는 송고가지영의 경우는 생명에 대한 존엄을 인식하는 모습에서 드러난다. 전쟁 전에 경원시했던 남편과 친정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모습과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녀의 태도에는 생명에 대한 존엄을 보여주는 송고함이 우러나온다.

하기훈의 송고함은 낭만적 기질의 공산주의자로서 자신의 이념을 고수하는 면모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지영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념의 송고함을 보여주는 지식인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그의 애인 가화는 탈속적인 인물로서 사랑을 지키기 위해 빨치산의 공간인 지리산까지 찾아간 인물이다. 그녀의 송고한 사랑은 전쟁의 폭력 앞에서 비극적인 모습으로 제시되었다.

『시장과 전장』은 낭만적 주체들이 보여준 생명존중에 대한 송고, 이데올로기의 송고, 사랑의 송고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이 작품에서만 볼 수 있는 일회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박경리 소설의 송고함은 『토지』에서 절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송고는 『토지』의 한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송고미의 전사(前史)라 하겠다.

* 핵심어 : 『시장과 전장』, 시장, 전장, 낭만성, 송고, 초월적, 생명존중, 이념, 사랑.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5년도).

**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부교수

1. 머리말

박경리의 소설 『시장과 전장』은 1964년에 발표되었다. 1950년대 그의 작품이 사소설적 경향이 과도하다는 비판적 평가¹⁾를 받았다면, 4·19를 거치면서 작품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여 1960년대 소설은 찬·반의 평가 속에 주목을 받는다. 그 중심에 있는 작품이 바로 『시장과 전장』이다. 이 작품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전쟁에 대한 관념적인 묘사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는가 하면, 전쟁의 원인인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대해서 긍정적 논의²⁾를 함으로써 양분된 관심을 드러내었다.

긍정적 평가의 대표적인 비평가 조남현은 『시장과 전장』을 박경리의 문학세계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소설사에서도 의미 있는 작품으로 보았다. 박경리의 60년대 초반 장편소설들과 비교할 때, 즉 전쟁체험을 제재로 한 『표류도』, 『과시』 등과 비교할 때 이 작품은 전쟁의 의미, 이데올로기, 이념 대립, 민중의 속성 등의 문제들을 고려하여 60년대로서는 객관적이며 진보적이라 할 수 있는 기록과 해석³⁾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이다.

6·25 전쟁에 대한 문학적 인식은 시간의 진전에 따라 변화를 드러낸다. 전쟁 발발시기와 큰 시차를 보이지 않는 1950년대의 문학적 인식은 ‘피해의식’이 지배적이었다. 즉 생존의 위기와 존재론적 불구 의식, 윤리적 파탄, 역사적 수난 의식 등을 묘사하는 데 주력한 작품들이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면 6·25전쟁에 대한 내면화 과정을 거친다. 분단의 이론적 인식과 내면화, 성장기적 각성 등⁴⁾을 함유한 통찰력과 객관적 태도를 확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60년대 전쟁문학의 특성을 보여주는 데 있어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은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작품이다.

박경리는 비록 4·19세대의 멤버로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논자들에게 60년대 문학 현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⁵⁾ 논의를 종합해 보면, 최인훈의 『광장』에 나타난 ‘밀실’과 ‘광장’이 전쟁 전후의 현실을 치환한 언어라면,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은 전쟁 발발 시기의 현실을 ‘시장과 전장’으로 치환하여 전쟁 당시 남한 측의 시민 입장과 북한 측의 공산주의자의 이념을 드러낸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의 이면에는 여성작가의 작품을 새롭게 인식하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여성작가로서 전쟁을 체험한 구세대는 최정희, 손소희, 강신재, 손장순, 전병순, 임옥인, 한말숙, 한무숙 등이 주목받았다. 이어지는 세대는 박경리와 박완서, 그리고 오정희가 될 것이다. 여성 작가들의 전쟁체험 서사는 거시적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범주에서 일상적 생활을 재현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그런데 박경리와 박완서의 서사를 통해 전쟁소설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작가는 전쟁의 개인적 체험을 서사화하면서 인간존재의 의미를 짚어 보았다. ‘6·25 전쟁’의 서사화를 이념과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한 여성주체의 내면화 과정을 깊이 있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박경리가 형상화한 전쟁체험의 여성인물은 성찰 또는

1) 유입하, 「박경리 초기소설에 나타난 전쟁체험과 문학적 전환: 《애가》와 《표류도》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6, 2012, 482면.

2) 부정적 논의의 대표적 논자는 백낙청(「피상적 기록에 그친 6·25 수난」, 『신동아』(1965.4))이며, 긍정적 논의는 조남현의 글을 들 수 있다. 최근까지의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긍정적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으며, 이 작품을 ‘전쟁의 기록’으로 보고 6·25라는 역사적 사건과 그 경험이 얼마나 잘 형상화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3) 조남현, 「『시장과 전장』과 이념 검토」,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집, 1993, 128면.

4)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1945~1990』, 민음사, 1991, 87면.

5) 구재진, 임경순 등의 논의를 보면, 물론 한계점도 밝히고 있으나 60년대 문학 자장에서 이 작품의 성격을 찾아보는 성과를 발견할 수 있다. 참고할 논문은 다음과 같다.

구재진, 「1960년대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생활’의 의미: 박경리론」,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임경순, 「유토피아에 대한 몽상으로서의 이념: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45집, 2005.

성장주체로, 그리고 박완서의 경우는 증언주체의 성격을 부각하였다. 이러한 인물의 서사화는 은연중 전쟁문학은 남성작가들의 전담이라는 굳어진 인식에서 탈피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은 낭만적 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송고미를 드러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낭만적 주체들이 보여준 모성애의 송고함, 이데올로기의 송고, 사랑의 송고 등은 이 작품에 나타난 일회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하나의 지류가 되어 그의 문학세계의 정점인 『토지』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유종호는 『시장과 전장』은 『토지』에서 절정에 이른 박경리 소설의 긴 도정에서 볼 수 있는 굵직한 이정표⁶⁾라고 보았다.

박경리 문학의 기저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소외문제, 그리고 낭만적 사랑에서 생명사상으로의 흐름⁷⁾이라 할 수 있다. 『토지』의 거대한 서사 흐름 속에는 우리를 송고하게 하는 여러 대상이 드러난다. 이 소설의 송고함은 이재복의 연구를 주목할 수 있다. 그는 이 작품에 나타난 송고함을 ‘가문’, ‘땅’, ‘사랑’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가문은 이데올로기와 욕망의 문제에 닿아 있고, 땅은 윤리의 문제에, 사랑은 환과 삭임 같은 정서의 문제에 닿아 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송고함을 느낄 때 그것이 공포와 강압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자발적인 이끌림과 매혹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⁸⁾ 송고는 오랜 역사적인 전통을 유지해온 개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7장의 아름다움과 크기⁹⁾에 대한 언급을 시작으로 송고의 이론적 원천을 제공하고 있는 롱기누스의 『송고함에 대하여』, 버크의 『송고와 아름다움의 이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와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거치면서 송고는 하나의 미학으로서 정립되기에 이른다.

6) 유종호, 「여류다움의 거절」, 조남현 편, 『박경리』, 서강대학교출판부, 1996, 55면.

7) 이상진, 『『토지』 연구』, 월인, 2003, 28면.

8) 이재복, 「박경리의 『토지』에 나타난 송고미」, 『몸과 그들의 미학』, 도서출판b, 2016, 257면.

9)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천병희 역, 문예출판사, 2002, 56-58면.

각 철학자들마다 송고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나, 『시장과 전장』을 분석하는 데에 유효한 공통된 논의는 감정의 고양을 경험하는 점이다. 즉 절대자나 거대한 자연 등의 위력 앞에서 왜소한 인간이 공포나 불안과 같은 불쾌의 감정에서 쾌의 감정으로 전이될 때 내적인 힘의 작용으로 인간의 영혼이 고양되는 것으로 수렴된다.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송고의 의미는 『토지』에서처럼 강렬하지는 않으나 박경리 문학의 특성을 이루는 데 기여하였다고 본다. 그의 문학 특성을 낭만성과 송고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박경리 소설의 해석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데 일정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2. 낭만적 주체의 생명존중과 송고

『시장과 전장』은 여주인공 남지영의 서사와 남주인공 하기훈의 서사를 병렬식 구성으로 전개되고 있다. 제수와 시숙의 관계인 두 인물이 6:25 발발부터 9:28 수복 동안 서울 시민으로서 겪었던 피난체험과 전쟁에 가담한 북한군으로서의 이야기가 중심 사건이다. ‘생활’과는 거리가 먼 낭만적 속성을 지닌 지영은 전쟁을 계기로 하여 강인한 생활인의 모습으로 변모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녀의 행동과 사유는 생명존중 사상과 모성애를 발휘하며 송고미를 드러낸다.

지영의 성격을 낭만성으로 규정한 것은 프루스트가 제시한 ‘낭만적’이라는 어휘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프루스트에 의하면 ‘낭만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형용사들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매력적’, ‘비이기적’, ‘화려한’, ‘장식적’, ‘비현실적’, ‘비합리적’, ‘신비하고 영적인’, ‘정서적’, ‘공상적’ 등과 같은 용어이다.¹⁰⁾ 이 책에서 낭만주의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어떤 것이 그럴싸하다기보다도 경이로울 때, 절멸해 버린 것에 대한 숭배,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노력, 감상적 우울증,

10) Lilian R. Furst, *Romanticism*, 『낭만주의』, 이상욱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2-6면.

막연한 동경, 이성 및 사실감과 대조되는 상상력, 이정보다는 정서, 이 지적인 것과 반대되는 감정적인 것, 아름다움에다 신기함을 추가한 것, 정신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 등을 내포할 때 지칭된다. 이러한 정의를 고려할 때 ‘낭만성’을 한 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현실을 초월하거나, 현실과 분리된 또 다른 세계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여주인공 지영뿐만 아니라 하기훈과 이가 화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작중인물들을 ‘낭만적 주체’로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먼 곳에 대한 동경’과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낭만적 속성의 중요한 부분을 함유한다.

지영의 결벽증에 가까운 고결한 성품과 강한 자의식은 가정과 학교 생활에 소외감이나 위축감을 들게 하였다. 이러한 삶의 태도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남편과 친정어머니이다. 남편의 세속적인 면과 허영심¹¹⁾, 그리고 어머니의 강한 생활력은 그녀가 가정주부로서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감을 제거하였다. 결국, 그녀는 가정을 떠나 연백 지역에서 교사가 되는 생활을 선택한다. 연백에서의 생활은 결혼 제도로부터 탈피한 은둔의 성격이 강하다. 삼팔선 접경 지역이라는 공간적 특성은 앞으로 발발할 전쟁의 생생한 현장감을 부여하는 개연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활기찬 삶의 규칙이 존재하는 장소라기보다는 외진 곳, 도시에서 먼 세속적 공간의 이미지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그녀가 추구하는 삶 속에는 가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녀는 두 아이와 남편, 어머니를 벗어난 혼자의 삶을 원하며, 심지어는 자신이 납북되어 가족과 떨어져 있는 삶을 상상해 보기도 하는 ‘무서운 욕망’(127면)에 사로잡히거나, 사하라 사막이나 바이칼 호수와 같은 먼 곳에 대한 동경을 은연중 드러낸다. 그녀를 낭만적 기질의 소유자로 보는 이유

11) 지영이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지 못하는 이유는 결혼 전에 그가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것, 남의 밭에서 감자를 켜 것, 책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남편의 여러 행동 때문이다. 지극히 사소한 행위이지만 지영에게 남편의 그런 행위는 그 어떤 정결함, 윤리적 태도, 교양 등이 결핍된 것으로 여겨졌다.

도 바로 이와 같은 현실과 유리된 먼 곳의 동경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연안여고의 선생님들과 나누는 대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꽃을 가꾸고 꿀벌을 치고 개나 기르고, 그리고 혼자 살았음 좋겠”다는 그녀의 말 속에는 번잡한 도시보다 탈속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그녀의 성격이 드러난다.

지영의 낭만적 경향은 시장을 동경하는 데서 구체화된다. 그녀가 동경하는 ‘시장’은 이 작품에서 아주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본주의 논리가 작용되는 공간이 아니다. ‘시장’은 작품 제목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시장에서’라는 소재목으로도 나온다. 관현악곡 <페르시아 시장에서>는 지영과 연안여고 선생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들던 음악이다. 정순이 선생은 ‘동화’ 같은 느낌 때문에 이 음악을 좋아한다고 밝힌다. 원래 이 곡은 유럽인들의 동양에 대한 동경, 환상 등이 담겨 있는 이국적인 정서의 환상적인 음악이다.¹²⁾ 지영도 이 음악의 환상적 분위기에 동조하는데, 그녀가 방문한 ‘연안’의 시장에서 받은 인상은 상당 부분 ‘페르시아 시장’에 담긴 환상적 공간의 맥락에 닿아 있다.

학교에 나오는 길에 지영은 시장에 들른다.

시장은 축제(祝祭)같이 찬란한 빛이 출렁이고 시끄러운 소리가 기쁜 음악이 되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다. 동화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페르시아의 시장-그곳이 아니라도 어느 나라, 어느 곳, 어느 때, 시장이면 그런 음악은 다 있다. 그 즐거운 리듬과 감미로운 멜로디가. 그곳에서는 모두 웃는다. 더러는 싸움이 벌어지지만 장을 거두어버리면 붉은 불빛이 내려앉은 목로점에서 화해 술을 마시느라고 떠들썩, 술상을 두들기며 흥겨워하고. 대천지 원수가 되어 무슨 이로움이 있겠는가. 오다가다 만난 정이 도리어 두터워지는 뜨내기 장사치들.

물감 장수 옆에 책을 펴놓고 창호지에 담배를 마는 사주쟁이 노인도 서편에 해가 남아 있는 동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온갖 인생, 넘쳐

12) <페르시아 시장 In a Persian Market>은 1920년 케텔비가 작곡한 관현악곡으로서 이국적인 정서와 민속적인 감각을 살린 환상적인 음악이다. 페르시아 민속 리듬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유명한 곡이다.

흐르는, 변함없는 생활이 이곳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이다.

지영은 이곳이 좋고, 혼자 거니는 외로움이 좋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좋았다. 시장의 음악과 시장의 얼굴들은 어린 날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향한 곳도 없는 그리움과 어린 날의 아픔이 바람처럼 지영의 가슴을 친다.¹³⁾

지영은 연안의 시장을 “생활이 이곳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노동과 물질이 거래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은 아니다. 오히려 축제의 공간이며 동화의 나라같이 즐겁게 해주는 곳, “혼자 거니는 외로움”이 좋아 심리적 구원을 얻는 곳이다. 그녀에게 시장은 기쁘고 활기찬 곳이며, 대립과 원망 대신 화해와 정겨움이 넘치는 곳이지만 이러한 시각에는 전쟁 이전의 것으로서 불편한 가족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즉 낭만적 속성이 기저를 이룬 상태에서 바라본 시장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시장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전쟁의 가속화에 따라 서서히 변하게 된다.

전쟁이 발발한 상황에서 ‘시장’의 의미는 시민인 지영의 삶과 결부된 공간이다. 전쟁 중, 남대문 시장에 들른 지영은, 이제 시장이 ‘페르시아 시장’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환상적이고 동화 같은 낭만적 장소가 아니다. 그녀는 연안으로 떠나기 전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곳가게에서 발을 멈추고 구경한다. 친정어머니의 부담스러운 정도로 강인한 생활력 때문에 스스로 물러났던 주부의 자리, 생활인의 자리를 서서히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반영이다.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인민군’의 모습을 통해 실제 6·25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인민군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인민군도 평범한 시민의 모습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자신의 가족을 위해 시장에서 소소한 물건들을 구입하는 인민군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영의 태도가 그러하다. 이처럼 총알이 오가는 ‘전장(戰場)’을 벗어났을 때의 시장은 생활의 원리를 반영한 공간이 되며, 피아(彼我)의 경계를

벗어난 시민들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시장에 나타난 다양한 군상을 통해 박경리는 6·25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 권력자들의 전쟁 논리에서 벗어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인민군마저도 애처롭게 바라보는 시각 안에서 동족 간의 이념적 대립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지영의 시장 방문은 한 번 더 등장한다. 마지막에 그려진 시장은 지영이 스스로 상인으로 나서는 공간이다. 남편과 어머니를 모두 잃은 지영은 가모장의 처지에 놓이며, 식량을 구하기 위해 상인의 입장이 되어 시장에 나타난다. 절박한 상인의 처지로 바뀌었을 때, 그곳에서 만난 교수들의 모습 역시 삶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인물들이며, 이때의 시장은 남대문 시장에서 느꼈던 감상적 태도보다는 생존에 대한 강한 의무감과 생명의 존엄을 자각하는 태도로 달라지게 한다.

지영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낭만적 속성은 송고함과 결부되어 있다. 그녀의 맑은 영혼, 성찰적 주체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지영의 성찰적 태도는 남편에게 쓴 편지에서 일차적으로 드러난다. 6·25가 발발하기 전날 쓴 편지는 고백체의 양식으로서 지영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 편지에는 아이를 둔 어머니로서 집을 두고 타 지역에서 교사생활을 해야만 하는 여성의 입장을 진솔하게 드러내었다. 이는 그녀의 삶의 태도가 변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두 번째 성찰의 태도는 독백에서 나타난다. 특히,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독백을 하는 지영은 전쟁체험 서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성 인물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일반적인 전쟁체험 서사의 여성이 강인한 모성애를 보여주는 것으로 형상화되었다면, 지영은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의하는, 즉 내면을 확보한 여성¹⁴⁾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지영은 얼굴을 감싼 채 우물가로 걸어간다. 우물 속을 들여다 본다. 우물 속에 달은 없고 꾸부린 지영의 등에 달빛이 비친다. 유리같이 맑은 밤.

13) 박경리, 『시장과 전장』 1권, 나남, 1993, 127면. 이후의 인용문은 권수와 면수를 표기함.

14) 김양선, 「한국 전쟁에 대한 젠더화된 비판의식과 낭만성: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페미니즘연구』 제8권 2호, 2008, 209면.

“밟혀도 밟혀도 뺨어가는 잡초, 난 잡초야!”

지영은 우물 속을 향해 나지막하게 중얼거린다. 소리가 울려서 우물 속에 퍼진다.

“끈질기고, 징그럽고, 지혜롭고, 민감하고 무서운 여자야!”

소리는 다시 울려퍼진다.

“살고 싶다! 내 자식들, 내 어머니. 당신은 죽어도 난 죽지 못해요.”

소리는 크게 울려퍼지면서 지영의 몸은 우물 속으로 자꾸 기울어진다.(2권, 449-450면)

“유리같이 맑은 밤”에 지영은 자신을 비취주는 우물을 보며, 전쟁으로 피폐해진 자신의 삶을 담금질하는 내면세계를 독백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혜롭고, 민감하고 무서운 여자”로 자신을 규정하는 독백 속에는 어머니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가 들어 있다. 그동안 남편과 친정어머니 때문에 소극적이었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강하고, 현명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는 그녀의 성장과 자기 정체성 확보¹⁵⁾를 보여줌과 동시에 송고함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어두운 밤과 대비되어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성찰을 이루는 태도는 인간의 고양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지영은 전쟁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생존의 본능으로 삶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존의 본능이란 “밟혀도 밟혀도 뺨어가는 잡초, 난 잡초야!”라고 외치는 지영의 말처럼 또 다른 인간의 금지에 속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와 현실의 거대한 힘에 눌려서도 죽을 줄 모르는 생명의 거대한 의지이기 때문이다.¹⁶⁾ 이 의지는 인간이 아니면 갖지 못하는 것으로서 박경리 자신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긍정적인 요소로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낭만적 인물에서 생활인으로 변화하는 과정 안에서 지영의 내면 속에 잠재된 ‘생명에 대한 존엄’과 인간다운 고결함이 표출된다. 그녀가 식물이나 동물에 애정을 지닌 것은 생명에 대한 연민이다. 피난길에 만

난 하모니카를 부는 청년, 개장국을 맛있게 먹던 노파, 병어리 지게꾼에 대한 관심과 동정, 남편을 살리기 위해 애쓴 노력들은 모두 생명에 대한 연민과 관련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모습은 그녀의 영혼이 맑고 고결하기에 가능하다. 롱기누스가 송고미의 출처 중에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은 ‘영혼의 고상함’¹⁷⁾이다. 지영의 영혼은 전쟁 중에 모성애를 보여주는 일반적인 어머니와 다르다. 대부분의 어머니가 ‘억척 어멈’의 스타일로 자기 자식을 돌보고 있다면 지영의 경우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내면세계를 응시하는 성찰의 태도까지 보여준다. 지영의 모성애와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는 송고미와 결부되는 근원이다. 그녀에게 송고미를 느끼는 부분은 특히 어머니의 시신을 업고 오는 장면에서 절정에 이른다.

지영이 어머니의 시신을 한강변에서 업고 오는 장면은 전쟁의 공포와 삶의 생존 본능이 동시에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 장면에서 그동안 소원했던 모녀관계의 해소, 생명에 대한 존중이 드러난다.

지영은 언덕길을 미끄러지는 듯 달려간다. 독길을 넘었다.

강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강물도 하늘도 강 건너 서울도 회색빛 속에 싸여 있었다. 지영은 윤 씨를 내려다 본다. 쌀자루를 꼭 껴안고 있다. 쌀자루는 피에 젖어 거무죽죽하다. 지영은 윤 씨를 안아 일으킨다. 그리고 들쳐업는다. 그는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음을 옮긴다. 윤 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오른다.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그는 독길까지 나왔다. 독길에서 저 멀리 과천으로 뺨은 길을 바라본다. 길은 외줄기… 멀리멀리 뺨어 있다.(2권, 476면.)

지영의 어머니 윤씨는 가족을 위해 국군이 식량을 배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강으로 나갔다가 참변을 당한다. 이것은 쌀 배급을 내세워 서울 잔류파들을 소탕하려는 계획이었다. 손자와 딸을 위해 쌀자루를

15) 김양선, 앞의 글, 209면.

16) 김치수, 「悲劇의 미학과 개인의 恨」, 조남현 편, 『박경리』, 서강대학교출판부, 1996, 87면.

17) 롱기누스, 『롱기누스의 송고미 이론』, 김명복 역, 연세대학교출판부, 2002, 34면. 롱기누스는 앞선 8장에서는 이를 “장엄한 개념들을 형성하는 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껴안고 죽음에 이른 윤씨 부인의 모습은 모성성의 구현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의 시신을 단신의 몸으로 보호하여, 전쟁 중에도 조출한 장례를 치른 지영의 행위는 생명에 대한 경건함을 보여준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이 삶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은 때로는 그 개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고결성을 잃게 만든다. 여기에서 인간다운 고결성이란 대단한 의미를 지닌다기보다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모멸감을 느끼지 않는 삶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영의 경우는 고결함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의 존엄을 유지하는 인물이다.

버크는 숭고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감정은 “경악(astonishment)”이며, 여기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감정이 바로 공포라고 하였다. 롱기누스가 제시한 ‘고결함’과 버크가 제시한 공포감의 상황들이 숭고미를 표출한다고 할 때, 지영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숭고함이다. 전쟁은 인간에게 무한한 공포감을 생성한다.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비극의 한계점들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상황이다. 지영이 당면한 어머니의 죽음은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전쟁에서 비롯된 경악과 공포 앞에서 지영이 보여주는 처연한 모습은 비극적인 숭고함을 발산한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가장 숭고한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존엄성이다.¹⁸⁾ 작가는 그 존엄을 지키는 것이 생존본능 이상으로 중요한 것임을 시사하며, 비천함에 대한 연민도 보여준다. 박경리의 소설에서 많은 인물들은 스스로 자존을 지키기 위해, 또 비천에 빠지지 않기 위해 죽거나 떠나거나 사람을 거부¹⁹⁾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박경리 소설의 또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바로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탐구²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결함이 이 작품에서는 생명의 존엄을 인식하는 태도를 함유한 숭고함으로 드러난 것이다.

3. 정치적 낭만성과 숭고

하기훈의 서사에서 주요 인물들은 애인 이가화, 스승인 석산선생 부부, 동지인 장덕삼과 빨치산 구성원 등이다. 이 작품에서 기훈의 애인 이가화와 남지영의 실제적 교류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기훈과 지영의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도 아니다. 시숙과 제수 사이의 두 주인공은 한 번의 교류가 있었을 뿐이다.²¹⁾

그럼에도 이 작품이 두 사람을 기축으로 전개되는 것은 기훈과 지영의 동일한 세계관이 전쟁을 통해 어떤 변화를 맞이하는지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본다. 두 사람의 동일한 세계관은 바로 낭만성이다. 다시 말해, 『시장과 전장』은 낭만적 성향의 두 인물들, 즉 낭만적 여성주체가 전쟁을 겪으면서 서서히 ‘생활인’으로 변해가는 서사와 낭만적 남성주체가 소멸의 길을 걷는 서사를 통해 박경리의 세계관을 피력하였다고 본다.

앞 절에서 살펴본 지영과 마찬가지로 기훈도 낭만적 기질을 소유한 인물이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영의 낭만적 세계관이 전쟁으로 인해 현실세계를 수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면, 기훈의 낭만적 세계관은 여전히 견고한 이념의 성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그의 견고한 이념적 세계에 작은 균열을 일으킨 것은 가화와 맺은 순수한 사랑이다. 그러나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사랑은 비극적으로 종결된다. 기훈의 잠재된 낭만적 속성은 가화를 만날 때마다 들려주는 소년시절, 청년시절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난다.

“산을 무너뜨려 바다를 메운 넓은 빈 터를 한참 지나서 바닷가에 나가면 고깃배들이 모여들고 어물시장이 벌어지는데 겨울이 오면 그 빈터에 곡마단이 와서 가설극장을 짓습니다. 슬픈 곡마단의 음악에 따라 계

18) 김치수, 「박경리와의 대화: 소유의 관계로 본 恨의 原流」,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186면.

19) 이상진, 『『토지』 연구』, 월인, 2003, 28면.

20) 김치수, 「悲劇의 미학과 개인의 恨」, 조남현 편, 『박경리』, 서강대학교출판부, 1996, 85면.

21) 기훈이 피난을 가지 못한 동생 집에 잠시 들러서 공산당 세계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말 것과 동생의 공산당 입당을 냉정히 비판하는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집에가 줄을 타고, 깃발과 가설극장의 천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말이 땅을 툭툭 차면 정말 미칠 듯이 좋더군요, 나는 그 곡마단을 따라가려고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1권, 35면)

곡마단을 따라 고향을 떠나는 것은 이상향을 동경하는 낭만주의자들의 일반적 태도라 할 수 있다. 기훈이 실제로 곡마단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스승인 석산 선생과 함께 이념 때문에 중국을 떠돌아 다닌 경력은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는 낭만주의자들의 방랑적 속성을 보여준 것에 해당한다. 그는 스승으로부터 혁명가라기보다는 ‘시인’이 더 어울린다는 말을 듣고, 동료 김니스트인 장덕삼으로부터는 휴머니스트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가 자신의 이념을 철저히 수행하는 김니스트인 것도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낭만적 기질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가화에게 들려준 또 다른 이야기에서도 이러한 기질을 유추할 수 있다. 해인사에서 공부를 할 때, 인간의 고독을 달래기 위해 ‘돼지’와 친하게 된 학창시절의 일화는 남지영과 하기훈이 동일한 세계관에 속한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지영과 기훈이 지향하는 이상 세계는 현재 벌어지는 전장의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먹이 때문에 벌이는 시장의 치열한 현장과는 정반대의 세계이다. 전쟁과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두 인물 지영과 기훈은 길가의 꽃이나 자연의 냄새와 소리, 생명의 기쁨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 작품은 선명하게 전개되는 병렬적 서사구조를 통해 낭만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두 인물의 성숙과 몰락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때 기훈의 낭만성도 지영과 마찬가지로 송고함과 결합되어 있다. 그의 송고함은 지영의 낭만적 세계관이 변화하는 가운데 송고미를 드러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치적 낭만성의 송고함을 드러내는 차이를 지닌다.

박경리는 이념에 대한 관심을 작품에서 풍부하게 드러내고 있다. 남 주인공 기훈의 이념적 태도를 전쟁 발발 전과 후의 행동 반경을 통해 부르조아 출신 코뮤니스트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기훈은 자신의 공산주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결혼이나 가족과 유리된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스승의 구명 상황마저도 외면한다. 또한, 남한에 팽배했던 아나키스트에 대한 인식도 펼치고 있다.

기훈의 스승인 석산은 유명한 아나키스트로 설정되었다. 제자인 기훈과 함께 북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공산주의였지만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으나(작품에 드러나지 않음) 아나키스트로 전향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이념적 논쟁을 보면 아나키스트였던, 김니스트였던 자신의 이념을 신봉하는 낭만주의자들의 모습을 지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띤다.

석산 선생과 자운 선생의 대화, 또 이들을 바라보는 기훈의 태도를 보면 이런 점이 드러난다. 기훈의 스승 석산은 혁명가로서 해방 공간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기운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고 믿는 인물이다. 반면, 공산주의자에서 변절을 한 자운은 지도력의 확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기훈은 변절자인 자운에 대한 염오를 드러내면서도 ‘석산의 운명과 더불어 있어 온 것 같은 바쿠닌의 사진’(1권, 79면)을 보며 선생의 노선도 인정하지 않는다.

① “나는 택하지 않겠어.”

“.....”

“결코 그들, 어느 편이 그들도 믿지 않으니까, 극단과 극단은 파괴와 멸망이 있을 뿐이야.”

“파괴와 멸망 속에 중간 노선은 편히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하다가 싱거워졌는지 외면을 한다.

(중략)

“믿지 않지.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야. 믿는다는 것은 광신, 믿기 위해서는 방편과 폭력이 따르는 법이니까.”

“모순이죠. 광신 없이, 방편과 폭력 없이 민중을 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시다면 차라리 모든 것에서 손을 떼십시오.” (1권, 85-86면.)

② “자네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네.”

“자네는 시인이야.”

“로맨티시스트가 가는 길은 니힐이지. 시인은 모든 것을 사랑하지만 또 모든 것을 믿지 않아. 김니스트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않지만 완강

한 믿음이 있지. 마치 예수쟁이가 하나님만을 믿는 것처럼. 그들은 이론이나 교리 형식에 미치지만 그 까닭으로 그 외 것에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맑스는 민중을 위한 사랑에서 유물론의 체계를 세웠다지만 컴니스트는 그 체계만을 모시고 그것만을 위해 그 밑에 깔려죽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앓고 있거든. 명목이 어떻고 다 소용없네. 우리가 숨을 쉬어야 한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진실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뿐이야. 알겠지? 응, 기훈이.”(1권, 87면.)

인용문은 석산 선생과 기훈의 대화이다. ①에서 기훈의 이념적 맹신을 볼 수 있다. 그는 이념에 대한 ‘광신’을 당연시하고, 민중을 이끄는 데 ‘폭력’이 필요하다면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스승은 이러한 제자를 낭만주의자로 판단하며, 그가 공산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태도에 대해 불안감을 지닌다.

헤겔에게 있어 낭만주의적 의미의 절대성이라는 것은 오로지 감정과 동경을 통해서만 이를 수 있는 공허하고도 인식할 수 없는 피안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에 의하면, 낭만주의는 현실과 개념을 무시하면서 순전히 주관성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간주²²⁾되었다. 기훈의 모습도 헤겔이 지적한 낭만성의 범주 안에 있다고 본다. 현실을 외면한 그의 낭만적 이념 지향은 행군 중에 만난 촌로를 통하여 허무주의로 빠져들게 하였다. 일반 농민들에게 사회주의 이념은 사치스러울 수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전형이기보다 보수적인 부동층임을 확인하였다. 농민들의 이러한 태도는 밤과 낮의 시차에 따라 뒤바뀌는 이념 편향의 인물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존 방식이었다.

기훈의 코뮌니스트로서의 자세는 그의 동료였던 장덕삼과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① “아직은 내게서 영웅심은 죽지 않았다. 개처럼 살고 싶진 않단 말 이야.”

“웁소! 난 개처럼 살고 있소. 허나 정직하게 말ियो. 사람의 부정직보

다 개의 정직을 나는 깨달은 지 오래요. 나는 개처럼 죽고 싶지 않단 말 이요! 살고 싶은데 죽는 바보는 되기 싫단 말ियो. 잡혔을 때 나는 살고 싶어서 정직한 자백서를 썼습니다. 그들이 사주는 곰탕을 먹었을 때도 살고 싶었소. 술을 먹으라 하더군요. 난 살고 싶은 마음을 잊으려고 사 발에 그득히 소주를 부어 마셨소. 뺏겼죠 그냥, 목욕을 하랍니다. 했지 요.(중략)

내내 트럭 안에서 울었습니다. 살려달라구요. 나는 지금도 그것을 비 겁하다 생각지 않소. 도대체 히로이즘이란 뭡니까? 역사가 뭡니까? 이념 이 뭡냐 말ियो? 내게 있어서 말입니다.”(2권, 550-551면.)

② “자네는 내게 사는 재미를 보여주고 싶어 그러는가? 아니지. 나를 죽이기가 꺼림직해서 그렇지. 내가 자수를 하고 자네같이 되는 편이 자 네에겐 훨씬 마음 편한 일이거든. 자네 그 변절자의 괴로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말일세. 배반하는 것은 여하튼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니까.”(2권, 552면.)

인용문 ①의 경우는 공산주의자에서 빨치산, 그리고 다시 전향하여 빨치산 토벌대장이 된 장덕삼의 이야기이다. 그가 변절을 하게 된 내면의 심리를 보여준 내용이다. 그리고 ②는 이에 맞서 대응하는 컴니스트로서의 이념을 끝까지 추구하겠다는 신념을 보여주는 기훈의 이야기이다. 두 사람의 대화와 인물의 행동을 살펴보면 장덕삼에 대한 서술자의 시선이 변절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견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덕삼의 변절에도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생명 존중’에 대한 장덕삼의 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박경리의 시선은 6·25 전후의 다양한 이념자들을 객관적으로 그려내 려고 하였다. 특히 코뮌니스트의 浪漫性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날카로운 시점에서 가능하였다고 본다. 실제로 낭만과 꿈이 그들로 하여금 코뮌니즘을 수용하도록 하였고, 이데올로기는 그 후에 이러한 스스로의 행동을 合理化시키기 위하여 등장되는 수가 많았던 것이다.²³⁾ 유중호 또한 박경리가 여느 여류문사와 다른 점을 논하는 글²⁴⁾에서 ‘기

23) 홍사중, 「限定된 現實의 悲劇」, 조남현 편, 『박경리』, 서강대학교출판부, 1996, 21면.

22) 김진수, 『우리는 왜 지금 낭만주의를 이야기 하는가』, 책세상, 2002, 70면.

훈으로 대표되는 한 시대의 지식인들이 낭만주의자였다는 사실을 투영시키기 위한 작가 측의 한 방책인지도 모른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즉 당대의 인텔리인 하기훈의 낭만적 속성은 한 시대를 풍미한 이념적 인물들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훈에게 나타난 낭만적 기질은 그의 이념과 결합하여 이념을 절대화하는 송고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정치적 낭만성의 송고를 보여준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영의 송고미와는 차이를 지닌다. 칸트에 의하면, 송고에 있어서 마음은 대상에 매료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항상 대상으로부터 반발을 당하기 때문에, 송고한 것에서 느끼는 만족은 긍정적 쾌감보다는 오히려 감탄이나 경외를 내포하는 쾌감, 즉 부정적 쾌감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²⁵⁾고 하였다. 칸트가 말한 송고의 대상은 거대한 자연, 신과 같은 절대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겠는데 기훈은 ‘이념’을 송고의 대상으로 상정한 것이다. 즉 이념을 고수하는 기훈의 태도에서 송고함을 발견하기보다는 이념을 송고하게 고수하는 기훈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기훈과 같은 인물에게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점은 송고 내에서의 이데올로기나 파시즘의 문제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송고 내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욕망과 파시즘의 문제는 송고의 차원을 더욱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몰고 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²⁶⁾ 박경리가 이 소설에서 하기훈의 행로를 비극적으로 형상화한 것도 이러한 점을 의식한 것이라고 본다.

4. 초월적 주체와 송고한 사랑

지영과 기훈이 독립적인 서사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가

화의 등장은 작품 초반과 후반부의 짧은 지면뿐이다. 그러나 이 인물의 설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고 본다. 남자 주인공 하기훈의 변모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작품 서문에서 가화에 대한 작가의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여태까지 부정적 인물밖에 그럴 수 없었던 작자는 처음으로 이 작품 속에서 긍정적인 여자 이가화(李嘉禾)를 만날 수 있었다는 데 대하여 기쁨”(7면)을 느낀다는 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가화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도 필요하리라 본다.

이 작품에서 가화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지닌 인물이다. 가화의 삶의 양태는 사회적 관계가 배제된 것으로서 지극히 관념적이고 현실성이 없어²⁷⁾ 보인다. 그녀가 기거하는 아파트는 현실적 삶이 소거된 공간의 성격을 지닌다. 아파트에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모든 가구들은 생략된 채 침구 하나만이 있을 뿐이다. 심지어 옷가지조차 걸려 있지 않다. 비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는 가화의 생활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공간 모습이다. 그녀는 현실적인 인물이라기보다 일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사랑만을 영위하는 초월적인 존재²⁸⁾로 그려져 있다.

작가의 언급대로라면 가화는 구원의 여인상이다. 박경리는 가화의 사랑을 통하여 지영과 기훈이 속한 세계를 구원하려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공산주의자였던 애인에게 부르조아인 부모와 형제를 잃은 그녀는 월남하여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말수가 없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듯이 보여도 그녀는 열정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여성이다. 새로운 애인이 되는 기훈과의 사랑을 위해 지리산까지 입산하는 행동력을 볼 때 낭만적 기질²⁹⁾을 유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로 인해 기훈은 잠시나마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아기를 소망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즉 순수한 사랑 앞에서 이념으로 무장한 그의 삶이 잠시 동요하였던 것이다. 가화는 기훈에게 삶에서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여성이다. 그는 가화를 살리기

24) 유종호, 「여류다움의 거절」, 조남현 편, 『박경리』, 서강대학교출판부, 1996, 54면.

25) 이마누엘 칸트, 『판단력 비판』, 김상현 역, 책세상, 2005.

26) 이재복, 앞의 글, 257면.

27) 김복순,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사랑과 이념의 두 구원」, 『현대문학연구』 제6집, 1996, 438면.

28) 임경순, 앞의 글, 280면.

29) 위의 글, 282면.

위해 장덕삼과 위험한 계획을 세우지만, 빨치산 동료의 감시로 인해 결국 가화를 죽음으로 치닫게 한다.

나뭇잎 사이로 달이 나타나고 달이 숨곤 한다. 물소리 뿐. 계곡에서 굴러떨어지는 물소리 뿐이다. 산과 산이 마주보고 있다. 계곡에 주빚주빚 솟은 바위에 은빛 달이 흐르고 있다. 벼랑에 달맞이꽃이 하얗게 떼지어 피어나고 있다. 개울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물소리는 더욱더 커진다. 폭포 근처까지 온 기훈은 가화의 손을 꼭 쥔 채 왼편으로 꺾어든다.

(중략)

신선한 향기, 멀리서, 아득한 곳에서 물소리가 들려온다. 하얀 달맞이꽃이 떼를 지어서 피어 있고 물기 머금은 공기가 내리뚝인다. 사나이는 내가 좋으냐고 여자에게 묻는다. 미소하며 사나이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한다.(2권, 554면.)

인용문은 기훈과 가화의 마지막 밤의 모습이다. 두 사람의 사랑을 위한 공간에는 달맞이꽃이 가득 피어 있다. 이 장의 부제는 ‘달맞이꽃’인데, ‘기다림’이라는 꽃말을 지닌 이 꽃의 등장은 마지막 장뿐만 아니라 다른 장에서도 사랑의 내용이 나올 때 등장하였다. 달밤에 만개한 달맞이꽃 사이에서의 사랑은 낭만적 분위기와 함께 비극적인 숭고미로 드러난다.

숭고의 근원을 20여 가지³⁰⁾로 살펴보고 있는 버크의 글에서 가화의 사랑이 비극적인 숭고미로 표현되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주목할 것은 공포, 장려, 어둠, 밤 등이다. 버크에 의하면 장려(壯麗, Magnificence) 역시 숭고의 원천이다. 굉장히 찬란하거나 값진 사물들의 풍성함은 그 자체로 장려하다. 따라서 수많은 별들이 빛나는 하늘은 언제나 장려의 관념을 환기시킨다고 하였다. 이것은 별들 자체가 지닌

30) 에드먼드 버크는 숭고의 근원을 공포, 불명료성, 계속, 힘, 결여, 광대(廣大), 무한, 연속과 균등, 건축물의 규모, 쾌를 환기시키는 대상의 무한성, 난도, 장려, 빛, 건축 조명, 숭고를 유도하는 색, 소리와 평음, 급변, 단속성(斷續性), 동물의 울음소리, 냄새와 맛, 쓴맛과 약취, 느낌과 통각 등에서 밝히고 있다. 에드먼드 버크, 『숭고와 미의 근원을 찾아서』, 김혜련 역, 한길사, 2010, 129-169면 참조.

어떤 것, 즉 무한한 수(數)가 그 원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밤 또한 낮보다 더 숭고하고 장엄³¹⁾한 근원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버크의 생각은 기훈과 가화의 마지막 사랑을 나눈 달의 정경을 숭고미로 받아들일도록 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한밤중에 이뤄지며, 이때의 분위기는 낭만과 공포가 함께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낭만적 분위기와 숭고미가 드러나는 것은 ‘은빛 달’이 흐르고, ‘달맞이꽃이 하얗게 떼지어’ 피어 있는 모습에서 유추할 수 있다. 달맞이꽃의 군상은 깊은 밤, 천상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지상에 내려와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존의 위협 속에 있는 빨치산들의 고통스러운 행군을 고려한다면 두 사람의 사랑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공포심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머리를 다 감은 뒤 가화는 머리채를 늘어뜨린 채 구부정하니 옆드러 샘을 내려다 보고 있다. 머리끝에서 물방울이 샘 위에 떨어진다. 한참 만에 그는 두 손을 모아 머리의 물을 훑어내는데 가는 목덜미에 햇빛이 내린다. 가화는 천천히 머리를 벗어넘겨 고무줄로 동여매고, 다시 그는 샘을 우두커니 내려다 보며 움직이지 않는다.(2권, 553면.)

인용문은 가화가 기훈을 만나기 직전에 샘물에 머리를 감는 장면이다. 앞서 지영이가 우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었듯이 가화 또한 샘물을 응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화는 지영처럼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독백을 하지는 않는다. 평소 말수가 적은 그녀의 모습처럼 시종 침묵으로 샘물을 응시하고 있다. 독백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을 응시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며, 이러한 모습에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초월적 주체의 순수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사랑의 숭고함을 엿볼 수 있다.

31) 위의 책, 161면.

5. 맺음말

박경리는 1926년생으로서 20대에 6·25전쟁을 체험한 세대이다. 1955년, 『계산』으로 등단한 이후 『토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작품을 남겼다. 60년대에 발표한 『표류도』, 『시장과 전장』, 『과시』 등의 장편은 전쟁체험 세대로서의 문학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시장과 전장』은 그의 문학적 변화를 보여주는 전환기의 작품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 글은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낭만성과 숭고를 살펴보는 데 주력하였다. 『시장과 전장』은 6·25 전쟁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시장’과 ‘전장’이라는 대비적 공간 구조로 치환하여 낭만적 기질이 강한 주인공들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결벽중에 가까운 성격이지만 고결한 성품을 지닌 여주인공 남지영의 서사와 코뮤니스트로서의 이념을 신봉하는 하기훈의 병렬적 서사를 통해 낭만적 성향을 지닌 주인공들의 삶을 서술하였다. 하기훈의 애인 이가화가 사랑을 위해 빨치산 근거지로 찾아가는 행위까지 종합하여 보면, 세 인물들은 모두 현실과 유리된 초월적인 모습을 지닌 캐릭터로서 먼 곳에 대한 동경을 추구하는 낭만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세 인물의 낭만적 기질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룡기누스와 버크, 칸트가 정의한 숭고미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숭고미는 대상의 절대적 힘 앞에 지녔던 공포의 감정, 즉 불쾌의 감정이 쾌의 감정으로 전이하면서 내적 고양을 느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감정의 고양을 불러일으키는 숭고미가 지영의 경우는 생명에 대한 존엄을 인식하는 모습에서 드러난다. 전쟁 전에 경원시했던 남편과 친정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모습과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태도에는 생명에 대한 존엄을 보여주는 숭고함이 내재하고 있다.

하기훈의 숭고함은 낭만적 기질의 공산주의자로서 자신의 이념을 고수하는 면모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지영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이념의 숭고함을 보여주는 지식인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그의 애인 가화는 탈속적인 인물로서 사랑을 지키기 위해 빨치산의 공간인 지리산까지 찾아간 인물이다. 그녀의 숭고한 사랑은 전쟁의 폭력 앞에서 비극적인 모습으로 제시되었다.

박경리의 시선은 6·25 전후의 다양한 이념자들을 객관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특히 코뮤니스트의 浪漫性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날카로운 시점에서 가능하였다고 본다. 실제로 낭만과 꿈이 그들로 하여금 코뮤니즘을 수용하도록 하였고, 이데올로기는 그 후에 이러한 스스로의 행동을 合理化시키기 위하여 등장되는 수가 많았던 것이다.

박경리의 소설은 『토지』가 정점을 이룬다. 그의 주요 단편과 장편들은 하나의 지류가 되어 『토지』라는 거대함 속으로 스며들었다. 『시장과 전장』은 낭만적 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숭고미를 드러낸 작품이다. 낭만적 주체들이 보여준 생명존중에 대한 숭고함, 이데올로기의 숭고, 사랑의 숭고 등은 이 작품에서만 나타난 일회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작품은 『토지』의 한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숭고미의 전사(前史)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박경리, 『시장과 전장』, 나남, 1993
 ——, 『표류도』, 나남, 1999
 ——, 『과시』, 나남출판, 1994
 ——, 『토지』

2. 논문 및 단행본

- 구재진, 「1960년대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생활’의 의미: 박경리론」,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김복순, 「1950년대 여성소설의 전쟁인식과 ‘기억의 정치학’: 강신재의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003.
 김병익, 「6·25 콤플렉스와 그 극복」.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76.
 ——, 「60년대문학의 가능성」,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78.
 김양선, 「한국 전쟁에 대한 젠더화된 비판의식과 낭만성: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페미니즘연구』 제8권 2호, 2008.
 김진수, 『우리는 왜 지금 낭만주의를 이야기하는가』, 책세상, 2002.
 김치수, 「박경리와의 대화: 소유의 관계로 본 恨의 原流」,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 「悲劇의 미학과 개인의 恨」, 조남현 편, 『박경리』, 서강대학교출판부, 1996.
 유임하, 「박경리 초기소설에 나타난 전쟁체험과 문학적 전환: 《애가》와 《표류도》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6, 2012.
 유종호, 「여류다움의 거절」, 조남현 편, 『박경리』, 서강대학교출판부, 1996.
 이상진, 「여성의 존엄과 소외, 그리고 사랑: 1960년대 박경리 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토지』와 박경리 문학』, 한국문학연구회 엮음. 솔, 1996.
 ——, 『『토지』 연구』, 월인, 2003.
 이재복, 『몸과 그들의 미학』, 도서출판 b, 2016.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1945-1990』, 민음사, 1991.

- 임경순, 「유토피아에 대한 몽상으로서의 이념: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45집, 2005.
 조남현, 『한국현대문학사상의 발견』, 신구문화사, 2008.
 홍사중, 「限定된 現實의 悲劇」, 조남현 편, 『박경리』, 서강대학교출판부, 1996.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천병희 역, 문예출판사, 2002.
 에드먼드 버크, 『숭고와 미의 근원을 찾아서』, 김혜련 역, 한길사, 2010
 이마누엘 칸트, 『판단력 비판』, 김상현 역, 책세상, 2005.
 Lilian R. Furst, *Romanticism*, 『낭만주의』, 이상옥 역,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룡기누스, 『룡기누스의 숭고미 이론』, 김명복 역, 연세대학교출판부, 2002.
 빌헬름 딜타이, 『문학과 체험』, 김병욱 외 역, 우리문화사, 1991.
 W. Tatarkiewicz, *A HISTORY OF SIX IDEAS ESSAY IN AESTHETICS*, 『여섯 가지 개념의 역사』, 이용대 역, 이론과 실천, 1990.

<Abstract>

Romanticism and Sublimity in *The Market and War Field* by Park Gyeong-ri

Kim, Mi-Young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examining romanticism and sublimity in *The Market and War Field* by Park Gyeong-ri. The novel depicts changes to the lives of main characters that had a strong romantic disposition by transposing the historical situations of Korean War into the contrasting spatial structure of "market" and "war field."

In the novel, Park narrated the lives of two main characters with a romantic tendency through the narrative of heroine Nam Ji-yeong that had a noble character close to mysophobia and that of hero Ha Gi-hun that believed the communist ideology. When their stories are considered together with the act of Lee Ga-hwa, the girlfriend of Gi-hun, finding her way to the base of North Korean partisan for love, it seems apparent that those three characters are all transcendent separate from the reality and have a romantic attribute of pursuing a yearning for a distant place.

The romantic disposition of three characters, however, reveals the sublime beauty defined by Longinus, Burke, and Kant in the ravages of war. The sublime beauty is a phenomenon that one undergoes when his or her fear or unpleasant feeling in front of absolute power of the object is displaced with a pleasant one and accordingly feels an internal enhancement. Stirring an emotional enhancement in people, the sublime beauty is revealed in Ji-yeong when she recognizes the dignity of life. Her sublimity of showing the dignity of life from the ways that she does her best to save the life of her husband and mother whom she kept at a respec-

ctful distance before the war and by the attitude that she mourns the death of her mother.

Gi-hun's sublimity is observed in the ways that he sticks to his ideology as a romantic communist, which is different from Ji-yeong's case in nature. He is a representation of intellectuals to show the sublimity of ideologies. His girlfriend Ga-hwa is an unworldly character that even finds her way to Mt. Jiri where the North Korean partisan hides in order to keep her love. Her sublime love is presented in a tragic form before the violence of war.

Park's novels reach a culmination at *The Land*. As she continued her literary journey toward *The Land*, her major short stories and novels became tributaries and permeated into the vastness of *The Land*. Her *The Market and War Field* depicts the sublime beauty based on romantic attributes. Sublimity of respect for life, ideology, and love demonstrated by the romantic subjects does not remain as a temporary phenomenon only found in the work, which writes the pre-history of sublime beauty that is a characteristic of *The Land*.

* Key Words : *The Market and War Field*, Market, War Field, Romanticism, Sublimity, ideology, dignity of life, love.

* 이 논문은 2016년 10월 30일에 투고되어 2016년 12월 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12월 3일 편집위원회를 통해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다.